

# 구스범스

무비 스토리북

초강력 몬스터  
총출동!!!



## 구스범스 무비 스토리북

글 R. L. 스타인 | 옮김 이원경

204쪽 | ISBN 978-89-6548-332-8(74840) | 출간일 2015년 12월 3일

패키지 소프트커버 · 변형판 140x205 | 연령 10세 이상 | 값 8,500원



비룡소의 색다른 상상력 브랜드

## 개봉 즉시 미국 박스오피스 1위 책 블랙 주연 영화 「구스범스」 공식 소설!!!

### 「구스범스」 괴물들이 총출동한 판타지 어드벤처!

2015년 10월, 미국에서 개봉 즉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2016년 1월 한국 개봉을 준비 중인 영화 「구스범스」의 공식 소설이다.

영화 「구스범스」는 전 세계 4억 2천만 부 베스트셀러 「구스범스」를 스펙터클한 볼거리가 가득 찬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로 재탄생시켰다. 「구스범스」를 영화화하기로 나선 시나리오 작가들은 100여 권의 「구스범스」 책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영화화할까 고심하다가, 「구스범스」에 등장한 다양한 괴물을 최대한 많이 등장시키기로 했다. 목각 인형 슬래피, 공포의 설인, 거대한 사마귀, 늑대인간, 난쟁이 도깨비……. 책 속에서 튀어나온 온갖 괴물이 한 마을을 점령하려고 날뛰는 짜릿한 이야기로 새로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영화는 각 괴물의 개성과 특징을 실감나게 살려 압도적인 스케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구스범스」 작가 스타인을 영화에 등장시킨 것도 재미거리 중 하나. 할리우드 스타 ‘책 블랙’이 연기한 스타인은 괴물들을 창조해 낸 음침하고 괴팍한 작가로, 주인공 아이들이 의도치 않게 책 속에서 깨운 괴물들을 다시 봉인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고분군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구스범스 무비 스토리북」은 영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소설화한 작품이다. 화려한 볼거리에 집중할 영화에서 표현되지 못한 주인공들의 감정선이 섬세하게 살아 있어 읽는 재미가 있다. 책 뒤쪽에 10여 장의 영화 스틸컷을 담아 영화의 생생함을 고스란히 전달해 준다.

### 웰컴 투 구스범스 월드! 공포와 웃음의 완벽한 조화

*저는 항상 「구스범스」 시리즈를 ‘안전한 공포’라고 불러 왔어요. 그게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싹한 경험들을 겪어 가면서도 아이들은 안전할 거예요. 대본을 읽었을 때, 책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만족했어요.” -원작자 R. L. 스타인*

「구스범스」 영화는 「구스범스」 책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스범스」는 「해리포터」에 뒤이어 전 세계 어린이 책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 있고, 2014년 7월 출간 이후 국내에서 1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구스범스」의 인기 요인은 ‘어린이의 감수성에 맞는 오싹한 스틸감’ ‘시종일관 잃지 않는 유머’ ‘짜릿한 반전’에 있다. 영화 또한 이러한 「구스범스」의 매력을 그대로 살리고자 했다.

주인공 책은 소방관인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엄마와 단둘이 대도시 뉴욕에서 시골로 이사한다. 이런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 수 없는 책은 애써 의연한 척하는 까칠한 소년이 되어 버린다. 책의 옆집에 사는 소녀 헤나는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산다. 아빠는 「구스범스」를 쓴 괴짜 작가 스타

인. 이 사이코 아빠는 헤나가 집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밤낮없이 감시 태세이다. 어느 날, 조용하고 한적해 따분하기만 한 이들의 마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이 아이들의 실수로 「구스범스」의 괴물들이 책에서 탈출해 온 마을이 무법천지가 된 것. 아이들은 괴물을 다시 책 속에 봉인해 마을을 구해야만 한다. 「구스범스」 여느 책들이 그렇듯 영화에서도 친구나 가족에 대한 결핍을 지닌 어린 친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아이들의 용기와 기지로 공포를 해소하고 한 뼘 성장을 이루어 낸다.

공사가 중단된 으스스한 놀이공원, 음침한 지하 창고, 공동묘지 등 그동안 술하게 「구스범스」에 나왔던 우리 주변의 흔한 장소들이 오싷한 배경이 되어 주고, 엉뚱한 등장인물이 순간순간 웃음을 유발하며, 심장을 쫓깃하게 하는 반전이 숨어 있어서 보는 이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 또한 「구스범스」 여타 책과 다른 재미이다.

한 번이라도 「구스범스」 책을 읽어 본 독자라면 책 속 괴물들이 내 주변의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면 어쩌나 상상해 보았을 것이다. 「구스범스 무비 스토리북」은 그 상상을 재현해 보이며 또 한 번 「구스범스」의 공포 세계로 독자들을 빠져들게 만든다.

## ● 해외 독자 리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 책 「구스범스」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 나는 도저히 영화가 개봉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결국 이 책을 내 컬렉션에 추가했다. -머레이(미국, 아마존)

이 책은 영리하게 웃음을 유발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딱 맞게 으스스하며, 반전의 재미가 넘친다. 「구스범스」 영화의 많은 예비 관객들이 찾아볼 거라 생각한다. -알바로(미국, 굿리즈)

## ● 함께 읽으면 좋을 「구스범스」 책

### 구스범스 01. 목각 인형의 웃음소리

영화에서 괴물 부대의 수장으로 나오는 목각 인형 슬래피가 등장하는 책.

### 구스범스 13. 투명인간의 저주

영화에서 강력한 반전을 선사하는 투명인간을 다룬 이야기이다.

### 구스범스 호러특급 01. 좀비 핼러윈 파티

공동묘지를 지나다가 스타인을 붙들고 늘어진 좀비. 이 책에서 또한 공동묘지에 서식하며 한 동네를 무시무시한 혼란 속으로 빠뜨린다.

### 구스범스 17. 패서디나의 설인(가제) (근간, 2016.1 출간 예정)

영화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괴물, 설인이 등장한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 설인이 나타난다는 설정이 재밌는 책이다.

### 구스범스 호러특급 03. 난쟁이 도깨비(가제) (근간, 2016.1 출간 예정)

아무리 깨부숴도 곧 다시 온전하게 되살아나는 도자기 인형, 난쟁이 도깨비가 으스스한 공포를 선사한다.

구스범스 18. 거대한 사마귀(가제) (근간, 2016.1 출간 예정)

영화 속에서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서 보는 족족 뭉개고 짓밟는 거대한 사마귀. 그 사마귀가 특별 등장하는 책.

구스범스 19.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 블롭(가제) (근간, 2016.1 출간 예정)

꿀렁꿀렁 스타인까지 먹어 치운 괴물 피. 블롭이 세상을 위협한다!

## ● 작가 소개

### 지은이 R. L. 스타인

1943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대학을 졸업한 뒤, 어린이를 위한 유머 책과 잡지를 만들고 출판사를 운영했다. 이후 「공포의 거리」를 시작으로 공포 책 작가로 이름을 높인다.

1992년 「구스범스」 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스타인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구스범스」 시리즈는 지난 30여 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돼 3년 동안 방송되었다. 「구스범스」 시리즈는 2001년과 2003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현재는 「해리포터」 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에 올라 있다.

「구스범스」는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돼 2016년 1월 한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 ★ 스타인에게 보내는 전 세계 독자들의 찬사!

스타인은 호러의 왕자다! - YA(미국, 아마존)

스타인의 책은 모든 것을 잊고 빠져들 수밖에 없다. - 수진 세라(네덜란드, The ReadingList)

스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작가다. 무서운 이야기를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게 쓸 수 있구나! - 칼라베라(아르헨티나, 구스범스 팬 블로거)

### 옮긴이 이원경

경희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말 안 하기 게임』, 『쌍둥이 바꿔치기 대작전』, 『황금 열쇠의 비밀』, 『행복한 목수 비버 아저씨』 등이 있다.